

최악 전력위기 넘겼지만 9월 중순까지 고비

30도 웃도는 늦더위 전망... '절전'만으론 안돼

정부 전력수요예측 못해 해마다 되풀이 지적

전 국민과 산업계의 필수적인 절전 동참 노력 속에 사상 최악의 전력위기를 무사히 넘겼지만,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9월 또 한 차례의 전력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전력 공급 정책 실패가 '절전'이라는 국민의 희생으로 수습되는 상황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만큼 앞으로 정부의 '전력 대란'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력 위기' 사흘...산업계·국민이 '공신'=유례없는 폭염 속에 비상대책 전 최대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인

8000만kW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 12~14일 사흘간에는 민방위 사이렌을 울려야 하는 전력수급경보 '경계'(예비전력 100만~200만kW) 단계까지 발령됐을 뿐 더 이상 심각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력거래소는 14일 오후 3시 피크 시간 대의 수급대책 시행 후 기존 공급능력이 7753만kW, 최대전력수요가 7245만kW로 예비전력 508만kW(예비율 7.0%)를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사흘간 눈에 보이지 않는 절전 노력으

로 감축한 수요는 하루 평균 200만kW(원자력발전소 2기분)에 달하는 것으로 전력당국은 추정했다.

전력거래소 조종만 중앙전력거래센터장은 "무엇보다 어려움을 극복 하려는 국민의 힘으로 전력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늦더위' 지속하는 9월이 '복병'= 기상청은 9월 중순까지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전력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전력당국은 전방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는 전국 260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의무절전규제를 시행해 하루 200만~300만kW의 전력을 감축해 주지만, 9월까지 절전규제를 계속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감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2011년 '9-

15 전력 대란'도 9월에 발생한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계약전력 5000kW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3~15%의 전력을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한 절전규제가 이달 30일로 종료되는 것도 내달 수급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다.

아울러 여름휴가 기간을 조정해 전력소비를 줄이는 산업체 조업조정도 9월에는 활용하기가 힘들다.

전력당국은 올해 9월 평균 최대 전력수요를 7200만kW, 예비전력은 550만kW 정도로 보고 있다. 불시에 발전기 1~2대가 고장 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전력 위기' 막을 근본 대책 필요=국민의 고통 분담으로 벗어난 전력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관리 잘

못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지적에도 원전 비리를 미리 차단하지 못해 올 봄 원전 3기가 한꺼번에 가동이 정지되는 사태를 불러왔다. 원전 3기면 300만kW의 전력을 생산한다. 정부는 또 전력 수요예측도 제대로 못해 전력 공급시설을 제때 구축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전력난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전력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요관리와 함께 선진국 수준의 예비전력(20%)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발전설비 계획과 스마트그리드를 이용한 효율적인 전력관리 시스템 구축, 산업체의 자가발전 시스템 도입·확대 방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권필기자 cki@연합뉴스

'무등산 사계' 영화에 담는다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 제작비 크라우드펀딩

서석대, 임석대 등 국립공원 무등산의 아름다운 사계를 담은 영화가 제작된다.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아시아문화융합동조합은 '무등산 연가'(가제)를 공동제작한다.

시나리오를 쓰고 메가폰을 잡는 이는 광주 출신 이정국 감독이다. 최진실, 박신양 주연의 '편지'로 잘 알려진 이 감독은 국내 최초의 5·18 관련 장편 영화인 '부활의 노래'로 데뷔했으며 광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도 맡았었다.

영화의 테마는 '사랑'으로 무등산의 사계를 모두 영글에 담기 위해 4편의 오피니언 영화로 제작한다. 봄은 첫사랑, 여름은 청년의 사랑, 가을과 겨울은 각각 중년과 노년의 사랑을 담은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

어진다. 편당 제작비는 50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조직위원회는 우선 시나리오 작업이 끝난 여름엔 이야기를 광주국제영화제가 끝나는 9월 크랭크인 한다.

여름편의 제작비는 아시아문화융합동조합이 자체 조달하며 10월께 열릴 영화 제작보고회를 통해 작품을 선보인 후 향후 3편의 제작비는 시민 모금 등 크라우드펀딩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염종호 광주국제영화제 상임이사는 "지금까지 광주의 대표 상징인 무등산에 대한 영화가 없어 이정국 감독과 오랫동안 영화 제작에 대해 이야기해왔다"며 "상업적인 배급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완성도 높은 영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

檢, 전두환 차명 부동산 포착... 조카 체포

한남동 땅 매각 대금 60억 중 일부 전씨 측에 유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남 추정금 환수 작업을 벌여온 검찰이 전씨의 차명 의심 재산을 찾아내 추적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남 추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한 정황이 있는 전씨 누나의 아들 이재홍(57)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13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조경업체 C사를 운영하면서 전씨 측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남 이씨의 서울 가락동 자택과 C사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씨는 전씨의 친인척 중 그동안

거의 드러나지 않은 인물로, 전씨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1990년대 초반 전씨의 돈으로 서울 한남동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땅이 2011년 60억원 상당에 매각됐고 그 대금 중 일부가 전씨 측에 유입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 이씨를 체포해 부동산 매입 경위와 구입 자금의 출처, 최근 매각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씨는 1980년대 대기업에서 근무했으며 1991년 C사를 설립, 계열사 6개를 둔 중견 기업으로 키웠다. 전씨 장남 재국씨가 최대주주인 리브로의 4대 주주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전씨의 차명 부동산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재산

관리인' 1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이씨와 전씨 사이에서 부동산 거래 등을 대리하고 연락을 맡는 등 '매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 일가 재산을 관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이씨가 전씨 차남 재용씨에게 자신 소유의 경기도 오산 땅을 헐값에 팔고 금융기관 대출과장에서 오산 일대의 땅을 담보로 제공해 준 의혹을 추궁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오산 땅을 포함한 전씨 일가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분배해 준 역할을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전씨의 장인인 이규동 씨의 의사에 따라 같이 '재산관리인' 일을 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불을 끄고 별을 쬐다”

22일 광주에너지의 날 행사 “소등 동참하세요”

“불을 끄고 별을 쬐다.”

광주에너지시민연대는 제 10회 광주 에너지의 날 행사를 오는 22일 오후 6시부터 광주 비엔날레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3년 중 가장 많은 에너지소비를 기록한 날(8월22일)을 지정해 이듬해인 2004년부터 시작된 에너지의 날 행사는 한국가 내에서 전국적으로 동시 소등을 한 세계 최초의 행사로, 올해는 광주를 비롯한 전국 19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광주에서는 오후 2시부터 피크타임 냉방온도 2도 올리기 캠페인이, 밤에는 비엔날레광장 일원에서 부채 만들기, 태양광으로 휴대전화 충전하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 날 오후 8시22분부터 5분 동안 참여를 신청한 관공서, 기업, 학교 등에서 일제히 불을 끄는 '소등행사'가 진행된다. 아웃백, 스타벅스 코리아 등 기업들도 밤 9시부터 5분 동안 간판과 일부 조명을 소등해 행사에 동참할 계획이다.

소등행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아파트, 기관, 학교 등은 오는 20일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나 전화(062-514-2470)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정필기자 halo@kwangju.co.kr



유정복(왼쪽) 안행정부 장관이 14일 여수 국동항에 계류된 광공선 안에서 김충석 여수시장(가운데), 배용태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과 함께 적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여수시청 제공>

유정복 안행부장관 여수 적조현장 방문

“근본적 대책 마련하겠다”

유정복 안행정부 장관이 14일 여수 적조현장을 찾았다.

유 장관은 여수 국동항에 계류된 여수시 관공선에서 이호경 부시장으로부터 적조 상황과 대책 등을 브리핑받았다.

이 부시장은 적조대책상황실 가동과 예찰활동 상황 등을 보고하고, 전남도와 여수시, 여수해경, 어민 등 4자가 협력해 편 적조 방제 활동, 실제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브리핑했다.

유 장관은 적조방제 활동에 격려를 보내고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는 해상가로부터 적조 상황과 대책 등을 브리핑받았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내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63만820원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5% 많은 163만82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할 새로운 최저생계비 기

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인, 2인,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각각 60만3403원, 102만7417원, 132만9118원으로 인상됐다. 5인과 6인가구의 경우 각각 193만2522원, 223만4223원으로 올랐다. /연합뉴스

인상률 5.5%는 지난해 3.4%를 1.2%포인트(p) 웃돌 뿐 아니라 2000년 이후 2005년(7.7%), 2011년(5.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런 최저생계비 조정은 3년마다 이뤄지는 '계측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번엔 결정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 급여 체계로 전환되는 내년 9월까지 적용된다. /연합뉴스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높게 ↑
금리는 은행만큼 낮게 ↓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금호지점 | 팀장 010-4948-2882
풍암지점 | 팀장 010-3642-6142
궁동본점 | 팀장 010-3603-7981

2013년 2학기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7기)	광주교육대학교(8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3. 9. 6.(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3. 9. 7.(토) 09:10 (중급반)	·월, 목 아간반: 2013. 9. 2.(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3. 9. 5.(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3. 9. 7.(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3. 7. 25.(목) ~ 9. 7.(토)	2013. 7. 25.(목) ~ 9. 7.(토)
수업기간	2013. 9. 6.(금) ~ 2014. 2. 22.(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3. 9. 2.(월) ~ 2014. 2. 22.(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 목요일 아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정리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간 한자교육진흥원 한자사자자격특기개발부 ·각 현문해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과목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수업(3급)·사범대학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정리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간 한자교육진흥원 한자사자자격특기개발부 ·각 현문해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과목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수업(2급)·사범대학기회 부여
연락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0-3614-4160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0-3614-4160

www.always.kwu.ac.kr www.gnu.ac.kr

교육사업에 동참하실 분 찾습니다.

주)쓰리엘은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을 바꿔나갈 활력있고 능력있는 사원을 모십니다.

팀장 00명
강사 0명

교육사업에 열정 있으신 분

■ 교육 콘텐츠 사업

유치부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무교육, 생각하는 눈술 영어회화, 영문법, 중국어, 씨홍스
초등부	영어수학(9권), 논술(초·중·고급)
중등부	1,2,3 영문법, 영어회화 논술고급, 사회
고등부	고1, 이과문과, 국어(1,2,3)

wawapen
태블릿PC

주)교육사업 쓰리엘 광주지사
062)234-5356 / 010-9535-5333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① 연수일정(2013년 제11기)

- 개강일시: 2013. 9. 2(월) 기초오후 14:00 기초아간 18:30 심화오후 14:00 심화아간 18:30
- 개강장소: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3. 8. 1(목) ~ 2013. 8. 31(토)
- 수업기간: 2013. 9. 2(월) ~ 2013. 12. 20(금) (총 90시간)
- 수강료: ₩360,000
- 모집인원: 기초오후반: 30명 기초아간반: 30명 심화오후반: 30명 심화아간반: 30명
-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하고, 기초반 수료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심화반 편입 가능
- 수업시간: 매주 월요일, 금요일 오후반: 14:00~17:00 아간반: 18:30~21:00
- 수료 후 특전
 - 1,2단계(기초, 심화) 연수과정 수료시 총정리 발급 수료증 수여
 - 1,2단계(기초, 심화)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 ① (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한문지도사(민간자격))
 -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현문해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②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일 공휴일 휴무)

- 전화 (062) 530-3873~3876
-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sle.jne.go.kr